

# 얼굴이라 인권센터

인권센터 주춧돌이 되어주세요!



인권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권센터는 순수한 시민기금 10억을 모아 만들 예정입니다.  
국가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십시일반 보태어 만드는 모두의 인권센터입니다.  
작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만원씩 10만 명이면 10억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인권의 힘을 발휘합니다.  
CMS(자동출금)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소속단체, 가족, 친구, 자녀들에게 주춧돌을 선물하세요!

주춧돌을 놓아 주신 분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돌**에 새기겠습니다.

주춧돌 계좌: 신한은행 100-025-564580(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가  
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려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  
붙이는 가라.

인권위가 인권위다운 세상을 위한 이야기

우리 안의 괴물

정상훈

사라졌다.

입은 있으되 말이 사라졌다

아니, 말은 많은데 정직한 말은 자취를 감췄다

감는다.

눈은 있으되 보지 않는다

무엇이 진실인지 애써 외면한다

단혀 있다.

귀는 있으되 듣지 않는다

소통은 그저 허울일 뿐이다

굴린다.

머리는 열심히 굴린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굴리고 또 굴린다

살핀다.

눈치도 열심히 살핀다

납작 엮드려 뒤통수 줄 것이 없나 주위를 살피고 또 살핀다

하여 거울에 비친 물결 흉측하기만 하다.

없다.

진정성을 볼 수 없다

부끄러움을 볼 수 없다

죽어간다.

무너진다.

애써 지켜온 아름다운 가치들이 살처분 되고 있다

침출수에 오염되고 있다

무관심인가? 체념인가? 지쳤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모두 아니라면 무엇인가.

만들어야 한다.

정직한 말이 살도록 입을 열게 하자

진실을 보도록 눈을 뜨게 하자

소통을 하도록 귀를 열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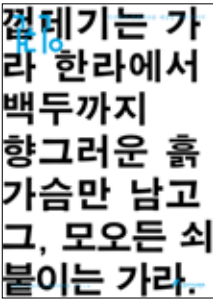
굴리고 살피는 짓 부끄러운 짓 거부하고 이제 그만 Stop

그리고 깨어 있자.

빼 속까지 깨우고 깨어 기억하고 기억하자

지금부터

이 시를 쓴 인권위 직원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징계의결 서에서 이 시가 위원회에 대한 모욕성 비판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누가 보아도 인권위가 괴물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표지이야기

내가 생전 처음,

인권위에서 들었던 말.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도 많아요.”

아직은 희망.

안녕. 인권위.

이 달의 독자

“「거꾸로 인권」 2호가 나온다니 싱송생송합니다.”

금세기(인권위도 막가는군 병들면 터지리 거꾸로 2가 1331)

울초에 「거꾸로 인권」을 읽었습니다. 「인권」과 한통속인 줄 알았습니다. 인권위에서 발행하는 「인권」을 읽으며 인권을 조금씩 배우기도 했지만 쓸쓸하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잡지에서 인권현안에 대해 다루고, 인권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듯한 글들이 많지만, 그래서 가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약간의 검열을 경험한 기고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서인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명언을 하는 인권위의 현실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경찰서에 쫓힌 「인권」 잡지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기대하면서도, 이것을 보고 경찰들은 얼마나 콧방귀를 뽀嗎? 인권이란 원래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다시 2권이 나온다니 즐겁기도 하고 싱송생송하기도 합니다. 역시 뒷말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속 시원한 것일까요?

이 달의 신조어

현병스럽다

형용사. 시종일관 임명권자의 의중을 헤아린다는 의미. 주변의 쓴소리나 비판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쓰임. 용례: 최근 보궐선거 이후 측근들이 더욱 현병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병철답다

꿈수에 능하다는 의미의 직설적 표현. 비유적 의미로 대부분의 정보를 측근끼리만 공유하고, 편가르기에 능하다는 뜻도 있다. 유사어는 ‘속보인다’.

편집자가

금세기 독자에게

「거꾸로 인권」이 준 통쾌함을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만든 사진작가들의 노력도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아 「거꾸로 인권」 2호를 만들며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도 싱송생송했습니다. 10주년을 축하해줄 상태 아닌 인권위를 보며 ‘이렇게 돈을 써야 하나’, ‘이렇게 노동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했지요.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만 가득한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도록 했던 것이 인권운동의 몫이었던 것처럼, 인권위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와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권위 내부에도 미약하나마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거꾸로 인권」 2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인권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조금씩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드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부’ 출범 이후 예산절감과 발행부수 조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개인구독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해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앓든 해봐서 안다니까,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